

한국 대중음악의 생태미학 가능성*

-우석훈 『직선들의 대한민국』 제6장
「생태미학 상상도」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 호 준**

I. 이상은의 진부한 노래?

명랑하고 유연한 필체로 대한민국에 관한 자신의 미학적 우려를 전달하는 우석훈의 『직선들의 대한민국』을 읽고 나서 필자는 찻잔에 찻잎이 빠져들었다. 마지막 챕터 「생태미학 상상도」에 등장한 한국 대중음악 때문이었다. 이 챕터에서 그는 문학, 음악, 영화를 차례로 건드리며 각 분야에서 생태미학의 예를 찾는다. 또 앞으로 생태미학과 관련된 작품들이 보다 많아지길 바라며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지금 한국의 대중예술이 도시미학에 아무런 반성 없이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대중음악의 생태미학 가능성을 접치면서 이상은의 2007년 노래 ‘에코 송(Eco Song)’을 거론한

* 2008년 10월 웹진 음악취향Y(<http://cafe.naver.com/musicy>)에 실린 글을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 대중음악평론가

다. 노래의 가사를 책에 그대로 수록해 보여주고 나서 그는 “이상은 특유의 양식 실험도 사라졌으며, 가사는 10여 년 후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부하다”고 비판한다. 10여 년 후에? 그는 이상은 노래를 소개하기에 앞서 15년 전 공일오비(O15B)의 ‘敵 녹색인생’을 기념비적이란 수사를 동원해 먼저 소개한다. 이 노래의 가사 뒤에 그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중음악의 다양한 실험 가능성에 대해 긍정했던 사람이 많다”는 말을 덧붙인다.

II. 우석훈의 일면적 관점과 대중음악 비평의 충돌

두 노래에 대한 우석훈의 평가를 보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대중음악에 대한 생태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당연히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상은의 ‘에코 송’이 두루뭉수리 뜯구름 잡는 착한 노래라고 생각한다. 음악에 산신(三線)을 쓴 것도 그녀의 음악 이력으로 볼 때 그리 새롭지 않다. 하지만 ‘에코 송’의 의미는 앨범 “The 3rd Place”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달라진다. 90년대 중반 “공무도하가”와 “외롭고 웃긴 가게”를 연달아 내놓으며 동양적 감수성을 가장 훌륭히 녹여낸 아티스트로 인정받은 이후, 불행히도 이상은은 한동안 그 평가에 스스로 매몰된 자의식 과잉의 뮤지션이었다. 1999년 “Asian Prescription”에서 그녀의 뉴에이지 풍 설교는 절정에 달했고 그 여파는 2003년 “신비체험” 때까지 가시지 않았다. “The 3rd Place”가 내심 반가웠던 건 그 영역에서 비로소 벗어난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모종의 정신적 가치에 오래도록 우위를 두었던 그녀의 음악은 다시금 현실에 발을 디뎠다. “공무도하가” 이전의 편안한 팝 센스와 이후의 정제된 철학이 적절히 조화를 이뤘다고 할까? ‘에코 송’이 여전히 공중에 뜬 이상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삶은 여행’과 붙어있는 노래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다. 재미있는 건 이상은의 2000년 전후 음악을 비판하는 필자의 관점이 명상음악을 비판하

는 우석훈의 관점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우석훈은 이상은을 거론하기에 앞서 “현재 한국에서 생태음악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음악들은 이른바 명상음악 정도”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뉴에이지 계열, 국악 음계와 국악기를 사용한 음악, 다양한 민속 음악의 박자를 가진 타악기 음악을 지목한다. 이런 음악들을 “지나치게 단절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이며,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상업주의적”이라 평가하는 그의 관점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생태의 탈을 쓴 기획 상품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잣대는 똑같이 이상은의 “Asian Prescription”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래서 팝의 현실로 한 발 내려온 “The 3rd Place” 속의 ‘에코 송’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우석훈은 ‘敵 녹색인생’의 15년 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노래를 비판하고 있다.

아무리 생태적 관점이라지만 공일오비의 ‘敵 녹색인생’을 기념비적이라 추켜세운 것에도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敵 녹색인생’의 가사가 재치 있게 만들어졌지만 내용은 결국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음악만 놓고 봤을 때도 “The Third Wave” 전체에서 ‘敵 녹색인생’의 아카펠라는 획기적이지 못하다. 심하게 말하자면 다분히 기획 상품에 가깝다. “The Third Wave”의 시대적 의의는 하우스(house)를 노골적으로 표방한 ‘아주 오래된 연인들’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당시엔 거대 록으로 회귀한 아이돌 스타 신해철의 넥스트(N.EX.T)가 있었고, 헤비메탈에서 전향한 무수한 발라드 록커들이 있었다. 록의 우위를 힘주어 말하거나 아니면 록과 팝의 어정쩡한 경계 위에서 품 잡고 있던 여러 뮤지션들 속에서 공일오비의 하우스는 분명한 돌출이었다. 당시 3인조 밴드 공일오비의 예측불가능성은 참으로 독특한 맛이 있었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으려했던 그들의 태도는 발라드와 힙합과 내레이션을 뒤섞은 ‘다음 세상을 기약하며’ 같은 곡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필자에게는 공일오비의 이런 점이 단 하나의 생태 노래 ‘敵 녹색인생’ 보다 훨씬 가치 있게 다가온다.

두 노래에 대한 우석훈의 평가 앞에서 평론가랍시고 자질구레한 반론을 폈

지만, 이 두 노래에 대한 평가보다 더 신경이 쓰인 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중음악의 다양한 실험 가능성에 대해 긍정했던 사람이 많다”는 지적과 이상은을 “대중음악계의 마지막 남은 게릴라”라 칭하면서 지금 한국 대중음악의 상황을 “생태적 가치를 담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음악 장르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순간”으로 규정한 대목이다. 딱 드는 생각이, 우석훈은 한국 대중음악이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하던 90년대 초반을 꿰뚫었던 시절로 추억하는 것 같다. 왜냐면 계속 진행 중인 21세기의 ‘인디 씬’이란 존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가 유기농 소울(soul)을 표방하고 호박 넝쿨과 함께 사진 찍는 윈디 시티(Windy City)를 알았더라면 이상은을 마지막 남은 게릴라라 불렀을까? 아마도 그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규정한 곳은 한국 대중음악 씬 전체가 아니라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 속의 대중음악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래서 필자는 그가 앞으로 집필하려 한다는 『문화와 예술의 경제학』이 조금 걱정된다. 외파로 존재하는 하나의 곡이 아닌 앨범 전체의 흐름으로 조망하기, 뮤지션 전체의 디스코그래피 속에서 평가하기, 한 명의 뮤지션을 넘어 대중음악 씬 전체의 관계 내에서 위치 지우기, 이와 같은 비평가의 일상적인 방법이 도출해내는 결론은 생태적 관점에서 도출해내는 결론과 얼마나 다를까? 더욱 집요하게 펼쳐질 우석훈의 예술론에서 나는 한층 더 당황할지 모른다.

III. 대중음악은 근본적으로 도시의 음악인가?

그러나 우석훈은 결국 필자를 근본적인 고민 속으로 몰아넣었다. 영화 얘기로 넘어가기에 앞서 그는 “지금 한국의 대중음악은 공식적인 것이든 언더그라운드인 것이든 너무 길들여져 있고, 건설 미학 앞에서 단 한마디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꼬집는다. 이 말이 필자를 멈춰 세웠다. 한국 대중음악을 꼼꼼히 챙겨듣지 않는 것 같다는

내 추측과 달리 언더그라운드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이상은을 최후의 게릴라로 표현하고 윈디 시티를 모른다면 분명 꼼꼼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언더그라운드까지 싸잡아 비판한 그의 말에 썬의 외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통찰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에 대중음악은 본질적으로 도시의 음악이다. 시골의 음악을 들으려거든 뉴에이지나 월드뮤직을 들으면 된다. 당장 모던록 노래 한 두 곡을 떠올려보자. 힙합은 어떤가? 전자음악은 어떤가? 근래에 태동하여 현재 대중음악의 주도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은 장르들에서 시골 냄새가 나는가? 문득 자우림 김윤아 커플의 하우스젠(Hauzen) 광고가 떠오른다. 한강변 50평대 주상복합 초고층아파트에나 어울릴법한 가전제품 시스템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던록 밴드의 프론트우먼이 선전한다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석훈이 만약 이 광고를 보고 한국의 언더그라운드를 비판적으로 봤다면 필자는 할 말이 없다. 느낌을 좀 더 확장시켜보자. 한국의 모던록, 대략 어떤 느낌인가? 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생기발랄한가? 이런 귀여운 성격 때문에 최신 전자기기 광고와 트렌디 드라마에서 환대받는 것일까? 필자는 공공연히 밝혀왔듯 모던록 밴드나 인디 팝의 생기발랄한 여성 보컬을 좋아한다. 필자는 그 목소리들 속에서 가부장적 엄숙주의와 선을 긋는 근본적인 생(生)의 기운을 감지한다. 하지만 그 기운이 지금 자본주의의 영민한 술수와 엉터리 도시 미학에 포섭되어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면, 우석훈이 그렇게 묻는다면 필자는 머리를 긁적일 수밖에 없다.

당신과 나의 인연은 도대체 어디쯤 있는 것이고, 도시의 밤거리에서 나는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 모던록의 윙조림이 대개 이런 식이라고 해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니다. 굳이 도시의 모던록에서 건설미학에 맞서는 순기능을 찾는다면 ‘긍정적 소외’라 답할 수도 있다. 자기 스스로를 도시라는 공간에서 소외시키고 방향케 하는 몸짓. 모던록의 지글거리는 기타와 둔탁한 드럼이 번들거리는 시멘트 표피와 나의 살갓을 분리시키는 통증의 표현이라

면 최소한 건설미학에 복무하지는 않은 셈이다. 그러나 우석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을 성 싶다. 그건 기껏해야 패배자들의 자기 위안이고 찌꺼기로 남은 병리 증상일 뿐이다. 그는 좀 더 명량한 도전을 원하는 것 같다. 찾아보자. 생태 미학의 건강성을 설파하는 뮤지션이 윈디 시티 빼고는 한국에 아무도 없단 말인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우석훈의 염려대로 “단순히 가사에 생태적 시사점을 담는 것이 생태 음악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석훈은 필자를 찹찹하게 만든다. 그가 바라는 것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상업적 기획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내일은 늦으리’ 이벤트 따위는 아닐 것이다. 선포와 선언과 명백한 목적이 담긴 생태 노래가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이미 체득하고 있다. 도달해야할 곳에 이미 도달해버린 노래는 그것이 생태에 관한 것이든 뭐든 간에 힘이 없다. 아니,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곧 힘을 상실한다. 우석훈과 필자가 명상 음악에 회의적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침엽수림에 도착한 피아노, 이미 무릉도원에 도착한 해금, 이미 넓은 초원을 달리고 있는 타악기는 도시 미학과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못한다. 듣는 순간 그 곳에 다녀오면 그만이다. 이 같은 태만한 양다리 전술은 도시인을 어르고 달래는 한 낮의 기만술에 불과하다.

IV. 현재 한국 대중음악의 생태미학

필자는 우석훈에게 모하비(Mojave)의 “19세기 별똥별”을 추천한다. 언제나 모호한 영역으로 치닫는 전자음의 홍수가 명시적인 북녘들판과 두만강을 향할 때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알싸한 긴장감을 일으킨다. 필자는 또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우리는 깨끗하다”를 추천한다. ‘한국말’이란 노래는 얼핏 무기력한 모던록 화자를 대표하는 것 같지만 부클릿에 실린 새파란 논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묘한 영역의 창조는 짜릿한 쾌감을 준다. 이 정도로는 너무

약할까? 너무 모호한가? 우석훈도 이들의 음악을 알고 있지만 너무 변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파급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걸까? 그런 계산이라면 그는 욕심이 너무 과하다. 의도하는 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것에 접근하는 음악은 대부분 변방에 있기 마련이다. 아니, 언더그라운드의 생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에 접근토록 만든다. 이상적인 생태 음악? 그걸 공중과 TV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모하비와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가 최상의 생태 음악이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명징하고 유쾌한 강산에의 ‘사막에서 똥’ 보다 할로우 잰(Hollow Jan)의 ‘Blaze The Trail’이 더 생태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우길 참이다. 할로우 잰은 분노와 절규의 첩탐에서 있는 듯 보이지만 음악이 종료된 뒤 시작되는 여운의 에너지는 새로운 생(生)의 실마리를 한가득 제공한다. 윈디 시티도 마찬가지다. 유기농 소울이라는 그들의 명료한 슬로건은 언제나 명료하게 잡히지 않는 다른 공간, 즉 정치적 상상력과 한 쌍을 이룬다. 생태라는 잣대만으로는 윈디 시티를 결코 다 설명하지 못한다. 환각의 난장 ‘Rising Sun’이 그들의 정치성을 되레 강화시켜준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진진하다.

V. 대중음악의 숙명과 우석훈의 소망

필자는 다함께 잘 살자는 경제학자의 처방이 미학으로 향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또 음악의 실천 행위에 있어 대중음악이 최전방에서 있다고 판단한 것에도 전적으로 동조한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에 현재의 한국 대중음악을 바라보는 우석훈의 우려와 기대는 진심어리다. 그의 말대로 오늘날 한국의 대중음악은 주류든 비주류든 상관없이 다양성이란 손쉬운 철학 뒤에 웅크리고 앉아 그저 서로가 서로를 긍정하며 MB노믹스의 뒤를 쫓거나 아니면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지 모른다. 대중음악에 대한 그의 비판은 외부자의 무시 못할 통찰일지 모른다. 실제로 모던록의 모던은 일정 부분 ‘새로운

사운드 실험'의 모던에서 '멋진 가구 같은' 모던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필자는 우석훈이 한국 대중음악의 속살을 조금만 더 세심히 들여다보길 바란다. 대중음악은 언제나 어딘가를 찾아 헤맨다. 클래식 애호가와 월드뮤직 예찬론자들은 그 어딘가가 대부분 돈벌이로 귀결된다고 말하길 좋아하지만,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향하고 비정형의 사운드를 추구하는 대중적이지 않은, 때로는 대중적인 대중음악의 존재는 명명백백하다. 하지만 그 인식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미천했고 대부분 대중음악 마니아와 비평가들 내부에서만 회자되었다. 이걸 대중음악의 숙명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 숙명이 대중음악에게 피치 못할 정치성을 주었다. 그 속엔 아마 우석훈이 갈망하는 생태 미학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이 숙명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음악에서도 생태 미학이 발현되길 바라는 그의 소망은 이미 진행 중일까? 아니면 아직 발현시킬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일까?